

막장 보험살인

여수 백야대교 아래 숨긴 잔혹한 살인사건의 실체



보험금을 노리고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여성을 지인들과 함께 살해해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여수해양경찰에 붙잡힌 신모(34)씨가 11일 여수 백야대교 인근에서 범행을 재연하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사귀는 30대 여성 4억 생명보험 들게 한 뒤 살해

수령자 자신으로 바꾸고 공범과 나눠먹기

여수해경, 사채업자·공범 주부 2명 구속

지난 7일 여수 백야대교 아래 갯벌에서 숨겨진 채 발견된 A(여·34)씨(광주일보 6월 10일자 6면)는 보험금을 노린 지인들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해양경찰은 11일 보험금을 노리고 A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로 사채업자 신모(34)씨와 주부 서모(여·43), 김모(여·42)씨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

신씨 등은 A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4억 3000만원을 가로채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오후 7시 30분께 A씨에게 식사를 하자며 광양 시내 모 식당으로 유인했다. 이후 식사 도중 막걸리에 수면제를 타서 의식을 잃게 한 뒤 식당 앞에 주차해 둔 차량으로 옮겨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다음날 오전 2시 30분께 백야대교 인근 백야도 선착장에 도착, 30여분 동안 A씨의 시신을 준비해 철망으로 감싸고 벽돌을 매달아 다리 아래 바다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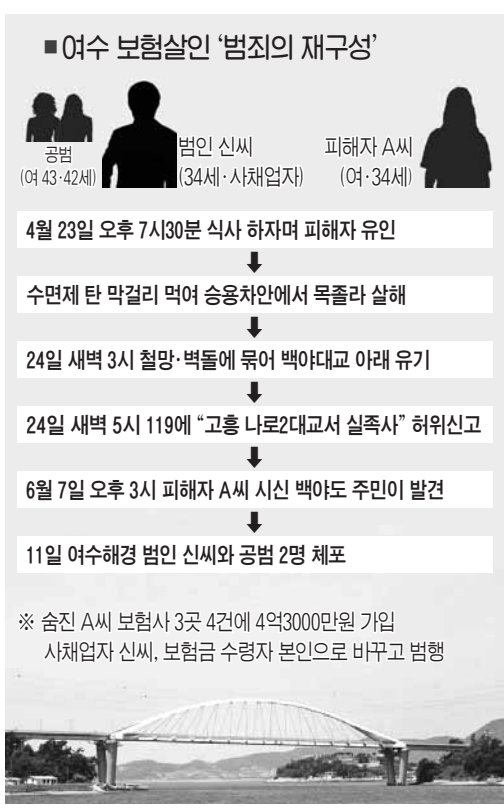
경찰 조사결과, 사채업자인 신씨는 피부습을 운

영하던 서씨 소개로 A씨를 알게된 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생명보험 가입을 종용,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3곳의 보험회사에 4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했다. 이후 자신이 사체를 빌려 주면서 알게 된 서씨와 김씨를 공범으로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씨와 김씨는 평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신씨는 이 과정에서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으로 바꿨고 범행을 제안하면서 보험금 절반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두 여성이 나누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2시간 뒤인 24일 새벽 5시께 고흥군 나로2대교에서 자신들과 관광을 하던 A씨가 사진촬영 도중 실족해 바다에 추락했다고 허위 신고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신씨는 애초 A씨를 질식사 시키려다 실과하자 뒷자리에 앉아있던 서씨 등이 끈으로 A씨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해경은 7일 "A씨가 새벽에 사진을 찍다 추락했다"는 신고를 수상해 여겨 내사에 착수, 무더기 보험 가입과 수령인이 제 3자인 신씨라는 점을 확인하고 검거한 뒤 보험금을 노린 범죄로 보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통화내역 등을 통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여수해경은 "범행수법이 잔인한 점을 감안, 자재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등 여죄를 밝히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운동선수·조폭 ... 광산경찰, 보험사기 113명 입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가벼운 질병으로 입원한 뒤 보험금 11억여원을 부당수령한 조폭폭력배와 아마추어 축구·야구 선수 등 113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광산경찰은 11일 보험사로부터 총 11억1천원의 자동차수리비와

치료비 등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사기)로 조폭폭력배 이모(42)씨 등 1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거나 일방통행을 역주행하는 차량을 끌다 고의로 사고를 내고 입원하는 등 지난 2007년 1

월부터 지난 5월까지 보험금 2억4천여원을 부당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정모(41)씨의 경우 지난 2009년 7월13일부터 9월14일까지 64일간 전북의 한 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뒤 보험사로부터 1900여만원의 입

원 수당을 받는 등 가족과 함께 5억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화순군 출신의 아마추어 야구선수 김모(22)씨 등도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한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기다렸다가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형사합의금 등 400만원을 타내 유증비로 쓰기도 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성폭행 피해 당구장 알바생 돕고싶다”

10대 소녀 딱한사연 각계서 온정의 손길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와 90살이 넘는 할머니를 모시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던 10대 여업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당한 사연(광주일보 6월11일자 6면)과 관련, 10대 소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당구장 업주로부터 최근까지 성폭행을 당한 A(17)양의 사연이 전해진 뒤 A양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문의가 잇따

르고 있다는 것이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 독지가는 이날 오전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에 전화를 걸어 A양을 돕고 싶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 독지가는 “두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남 얘기 같지 않았다”며 “아이 사연이 너무 딱해 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A양을 돕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시민들의 전화가 잇따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양과 가족들의 의사를 묻은 뒤 만남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114 음란전화 ‘철퇴’

전남경찰, 1600차례 못된짓 40대 구속·3명 입건

19일부터 범적대응키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114 안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음란전화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이모(48)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음란전화를 하거나 생트집을 잡아 욕설을 퍼부은 윤모(53)씨 등 3명도 성폭력 특별법 위반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와 윤씨는 최근 2개월 동안 114에 각각 1600차례, 400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상담원들을 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짜고짜 음란한 신음소리를 내거나 “자기가 굶지 말고 뽀뽀”라고 말하는 등 성적 농담을 일삼았

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른 2명은 각각 260차례, 140차례에 걸쳐 욕설하며 상담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22분 동안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을 한 경우도 있었다. 114 안내는 통상 한 건에 15초가량 걸린다.

경찰은 안내원체인 KTcs의 협조를 받아 대표적 감정노동자인 114 상담원들의 피해사례를 입수해 이 가운데 4명을 입건, 수사했다. 입건된 이들은 모두 ‘관리대상’으로 분류돼 통화가 용이 녹음되기도 했다.

한편, KTcs는 신고된 조항이 삭제된 성폭력 특별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회사 차원의 법률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응큼한 선생님

“바람 씹자” 고등학생 제자 피어 모텔서 성추행

목포경찰은 11일 제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교 교사 K(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9일 자율학습을 하러온 A양을 모텔로 데려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A양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고 피어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모텔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나원침 (8836) 김종두



공사편의 미끼 돈 뜯은 중앙 일간지 주재기자 영장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1일 공사편의를 봐준다고 속여 해당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사기) 중앙일간지 지역 주재 기자 A(49)씨에 대해 사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1년간 공사 수주를 해주겠다고 영업비 명목 등으로 업체 P사로부터 1억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왕따 양심 “미약하다” 거짓 신고

○“자신을 따돌리는 동료에 양심을 품고 마약을 투약한다

며 거짓 신고한 20대 여성이 최고량.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광양지역 다방종업원 김모(여·24)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4시 20분께 전남경찰청 112 지령실로 전화를 걸어 “친구가 마약을 투약한다”며 허위로 신고한 혐의.

○김씨는 배달원인 중국 국적의 장모(23)씨가 필로폰·엑스터시를 보여줬으며 동료 여종업원 3명은 마약을 복용·투약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하는가 하면, “부심을 통해 마약을 구해보겠다”며 조사나 수사관에게 수습민원을 받아 챙기는 대범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성가족부 인정

2013년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지정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3년 6월 17일(월) 개강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 강 료 : 24만원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족)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전 및 혜택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율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만자는 제적처리함.)
②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자**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
④ 사진 2매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산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교학처 (062)605-1112, 1063

오천경매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100만원이고 부자로 살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투자금이 1억이상 가진분에만 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